

HDC·계룡건설 자사주 소각… 건설사 주주환원 강화 나선다

상법 개정에 기업 자사주 소각 확대
HDC 771억, 계룡건설 2.7억 소각
대우건설도 2만1918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도 보유 주식 정리에 나서고 있다. HDC(IPARK현대산업개발 지주사)와 계룡건설이 나란히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우건설도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 기업별 소각 규모와 배경은 다르지만,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사주 정리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341만3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약 771억원 규모로, 전체 발행주식의 5.7%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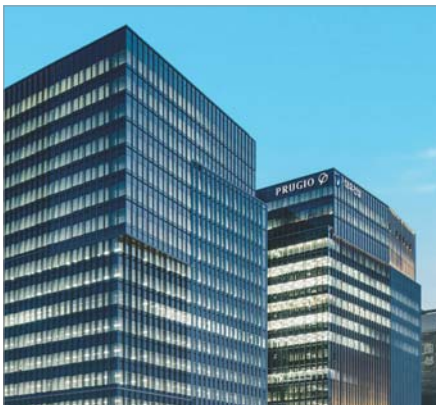
이번에 소각하는 주식은 HDC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024만200주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각 이후 발행주식 수는 5974



HDC 사옥.



계룡건설 사옥.



대우건설 사옥.

/각사

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줄어든다.

HDC는 지난해 12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기존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늘리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전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자사주를 사들인 뒤 계속 보유하는 것과 달리 소각된 주식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없다. 발행주식 수가 줄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당순

이익(EPS) 등 주당 지표가 개선될 수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계룡건설도 이날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소각 대상은 보유 자기주식 1만2760주로, 지난 7일 종가 기준 약 2억7179만원 규모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0.14%에 해당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각은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방식”이라며 “오는 16일 실제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기주식 2만191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예정금액은 약 4억2631만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0.005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대우건설이 소각 대상으로 정한 주식은 2007년 유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를 취득해 보유해 온 물량이다. HDC나 계룡건설과 달리 과거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자사주 소각 결정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소각 기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2027년 9월까지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기업이 보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30억 로또 청약 ‘디에이치 반포124’ 새 이름

서초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명 확정
20~30억 시세차익에 시장관심 쏠려
일반분양 1832세대… 분양가 ‘주목’

다음달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의 재건축 단지 이름이 기존 ‘디에이치 반포124’로 최종 결정됐다. 일반분양 물량만 1800세대가 넘는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20억~30억원의 시세차익 기대되면서 단지명 하나 바꾸는데도 시장의 관심이 쏠렸었다. 강남권의 경우 세금부담에 급매가 쌓이고 있지만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추첨물량이 300세대에 달하면서 매수 대기 수요가 디에이치 반포124 청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정도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기존 임시로 붙였던 ‘디에이치 클레스트’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로 바꾸기로 했다. ‘디에이치 반포 한강’을 비롯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 공사현장.

/안상미 기자

해 기존 단지명인 ‘디에이치 클레스트’ 등 6개 최종 후보 가운데 58.78%의 지지를 얻었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조합원 공모에서 1위를 했던 명칭이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지역명 ‘반포’, 기존 1·2·4주구의 상징성을 살려 ‘124’를 조합했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총 5007세대 규모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다. 9호선 구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예상 분양 시기는 오는 11월로 예정 물량은 1832세대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카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 단지는 작년 11월에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3.3㎡(평)당 8484만원이었다. 그간 오른 공사비 등을 감안해 평당 9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전용 59㎡, 84㎡의 분양가는 각각 약 23억7000만원, 32억3000만원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59㎡, 84㎡가 올 상반기에 각각 49억5000만원, 71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권은 지난 8월 57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금자리론 완화에도 신희부부 65% ‘무주택’

소득요건 완화 등 정책 지원 확대
6억 이하 주택·대출 부담 등 장벽

정부가 신희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지만, 집값과 자기자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신희부부 3쌍 중 2쌍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전국 무주택 신희부부 가운데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83.9%에 달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4년 신희부부통계를 보면 서울에 사는 신희부부 16만6163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10만7284쌍이었다. 무주택비중이 64.6%인 셈이다.

무주택 부부도 상당수가 대출을 안고 있었다. 전국 주택 미소유 신희부부의 83.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2489만원이었다.

신희부부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9일 신규 신청부터 신희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희가구의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이 완화돼도 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331만원, 수도권은 7억2947만원이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집을 찾아도 자기자금이 필요하다.

당장 매매가 어렵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지방자치제도의 이자지원 제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성채리 기자 cr56@

캠코, 1조3666억 규모 압류자산 공매

오늘부터 14일까지 3485건 공매
부동산 감평가 70% 이하 물건 1761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온비드를 통해 1조366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3485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은 부동산 3402건, 동산 83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831건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6건을 포함해 총 825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평가 70% 이하인 물건도 1761건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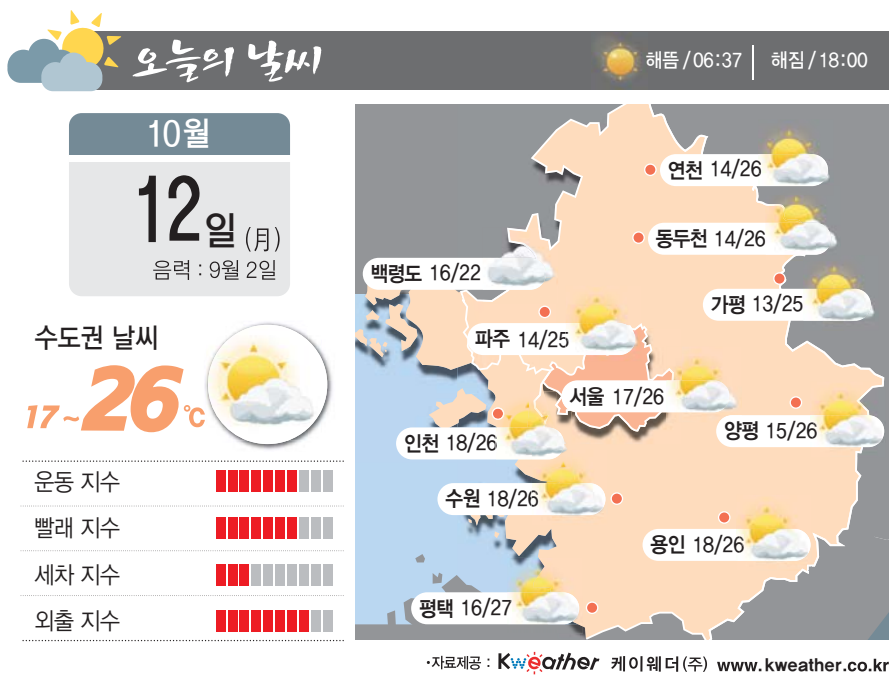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



▲트럼프 “젤렌스키 전쟁 끝낼 수 있지만 안 해… 우크라 새 대통령 필요”

▲사우디-후티 공습격화… 리야드공항 폭격에 12명 죽고 309명 부상

/사진 뉴스스

▲美 법무부, 트럼프 취재 보이콧한 방송사 5곳 반독점 조사

▲에너지 휴전 논의하러 갔는데 美는 러 경유 제재 완화…우크라 “함정 같았다”

▲드론에 ‘러시아판 구글’ 안텍스 또 멈췄다…나홀로 새 데이터센터 세 번째 피격

▲라이 총통, 국경일 연설 키워드…‘산 위의 도시 건설·세상의 소금과 빛’